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 모두 ‘암스트롱’ 고객으로 만들 것”

메트로가 만난 기업人

김기혁 에스더블유엠 대표

미국의 우주비행사인 닐 암스트롱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달에 착륙한 인물이다. 1969년 7월20일 자신이 몰던 아폴로 11호를 달에 안착시키면서다.

4일 벤처업계에 따르면 ‘암스트롱’이란 이름을 따 한국에서 무인 자율주행차 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벤처기업이 있다.

휴대폰 SW에서 자동차 전장까지 자율주행시스템 ‘암스트롱’ 선풍 모빌리티 안전 책임지는 비전 담아

2005년 창립한 에스더블유엠(SWM)과 김기혁 대표가 그 주인공이다.

경기 안양에 있는 에스더블유엠 본사 5층 관제실. 이곳에선 에스더블유엠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자율주행시스템 ‘암스트롱’을 적용한 12대 차량의 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한다. 돌발상황, 긴급 제동, 모듈 이상, 센서 이상 등 운행 관련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는 컨트롤타워인 셈이다.



에스더블유엠 김기혁 대표.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에스더블유엠의 자율주행차 누적 운행거리는 30만8010km로 집계됐다. 총 운행시간은 4만4164시간, 보유데이터는 7163TB에 이른다.

에스더블유엠은 현재 서울 마포 상암동에선 카니발을 개조한 승용차 2대, 대구 달성군에선 그랜저를 개조한 승용차 1대를 각각 이용해 유상 운송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 차량에는 에스더블유엠이 자체 개발한 자율주행 플랫폼 ‘암스트롱 3.0’을 장착하고 있다.

암스트롱 3.0은 에스더블유엠이 미래 먹거리로 삼고 있는 ‘자율주행’ 관련



에스더블유엠이 개발한 자율주행 플랫폼 ‘암스트롱’이 장착된 차량.

/김승호 기자

사업의 신호탄이다. 여기에 ‘모빌리티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회사의 비전도 담고 있다.

김기혁 대표는 “2021년 11월부터 유상운송 면허를 발급해 두 곳에서 평일 기준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서비스를 하고 있다”면서 “내년에는 서울 강남에 있는 자율주행 시범지구에서 ‘암스트롱 5.0’을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차 유상 운송 서비스를 새로 시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에스더블유엠이 올해 초 개발을 끝낸 암스트롱 5.0은 신경처리장치(NPU),

중앙처리장치(CPU), 마이크로컨트롤러장치(MCU) 등을 하나로 묶은 1000TOPS(초당 테라 연산) 시스템이다.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등을 통해 동시에 200개 이상의 자동차, 사람 등 사물을 인지하고 고성능 컴퓨팅 연산을 통해 사물의 방향도 예측할 수도 있다. 암스트롱 5.0(AP-500)은 자율주행 ‘레벨4’ 수준의 기술을 갖췄다.

이를 통해 운행가능영역(ODD) 환경이 가장 복잡한 서울 강남에서 자율주행 관련한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것이다.

김 대표는 “암스트롱 5세대는 향후

다양한 사업군에도 확대해 적용할 수 있다”면서 “확대 사업군으로는 소형 승용의 자율주행 택시 여객 운송부터 자율주행 여객·화물선, 도심 지역 무가선타램, 자율주행 요트·보트 등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휴대폰 소프트웨어(SW) 개발회사로 출발해 자동차 전장 SW까지 사업을 확장한 에스더블유엠은 지난해 15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올해 8월 기준 임직원은 181명에 달한다.

내년엔 ‘레벨4’ 맛먹는 5.0버전
강남서 유상 운송 서비스 도전
“글로벌 기업에 납품 능력 충분”

김 대표는 “자동차 전장 제품을 만드는 국내외 대부분 회사엔 우리의 SW가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전세계에 돌아다니는 자동차에도 우리의 SW가 장착돼 있다. 우리가 개발한 자율주행 시스템도 글로벌 기업들에게 납품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자신한다. 글로벌 자동차 기업 모두를 에스더블유엠의 자율주행 시스템 고객으로 확보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中企 84% “지자체 PL단체보험료 지원 만족” “CVC 규제완화 공정거래법 국회 통과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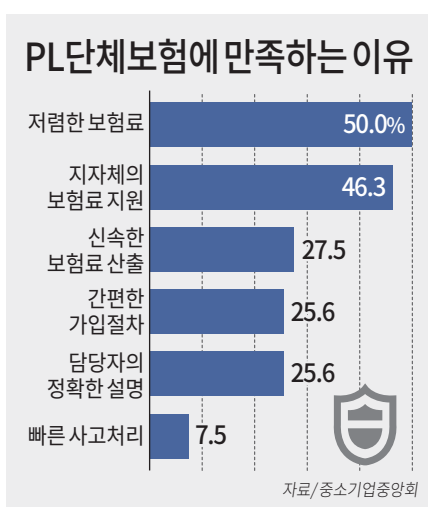
중기중앙회, 가입 191개사 대상 조사
저렴한 보험료·지원 등 만족도 높아
홍보 통한 안내·지원금액 상향 등 필요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PL단체보험)이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만족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PL단체보험 가입 19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해 4일 내놓은 ‘PL단체보험 만족도 및 애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87.3%가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83.7%는 PL단체보험 사업에 만족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만족하는 이유로는 ▲저렴한 보험료(50.0%) ▲지자체의 보험료지원(46.3%) ▲신속한 보험료 산출(27.5%) 등의 순이었다.

다만 중소기업들은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에 만족하면서도 홍보를 통한 안내, 신규 예산 편성, 지원금액 상향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중기중앙회 PL단체보험은 중소기업이 제조·판매·시공한 생산물의 결함으로 인한 제3자의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해주기 위한 상품으로 삼성

화재, 한화손보, DB손보, 흥국화재, 메리츠화재, 롯데손보와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동구매 형태의 단체가입 방식으로 일반 손해보험사 대비 최대 28%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 보장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 경기, 부산, 인천, 대구, 대전 등 15개 지자체와 협업체 납입 보험료의 20~30%를 환급해주고 있다. 특히 올해는 경기도가 신규 예산을 편성·지원함에 따라 해당 지역 내 중소기업의 경영에 도움을 주고 있다.

중기중앙회 박용만 공제운영본부장은 “현재 많은 중소기업이 ‘3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도 지자체의 중소기업 PL보험료 지원에 감사드리며 향후 지원 폭을 더 확대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벤처기업協

외부자금 출자비중 50% 완화 강조

벤처업계가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규제 완화를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공정거래법)에 대한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 벤처협회는 4일 낸 입장문에서 “벤처투자 위축에 따른 벤처·스타트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투자 위축은 벤처스타트업의 기술개발, 신규 사업개척, 판로확대 등 혁신 활동 전반의 침체를 가져올 수 있어 민간 산업자본의 벤처투자 유입에 대한 유인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며 “공정거래법 상 CVC가 가장 큰 애로로 뽑는 요인은 외부자금 출자 제한에 대한 이슈로, VC로서 투자활동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펀드 운영이 필수적이지만 현재 펀드 조성을 위한 외부 자금 출자 비중이 개별펀드의 40%

이내로 제한돼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에 외부자금 출자비중을 현행 40→50%로 완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CVC의 해외투자 제한비중도 현행 20%로 국내투자 활성화 취지에는 공감하나 해외기업 투자는 1건당 금액이 커 대부분의 신생 CVC에게 현행기준은 실질적인 해외투자기업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해외투자 제한을 20→30%로 완화해야 할 필요성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혁신적인 모험자본의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이번 개정안은 CVC 입장 뿐 아니라 벤처스타트업 입장에서 CVC의 모기업과 협력관계를 형성해 사업기회를 확장할 수 있다”며 “개정안은 CVC, 벤처스타트업 뿐만 아니라 벤처생태계 고도화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법안이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중소기업유통센터

전통주 온라인 판로 지원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서울 목동 사옥에서 한국전통민속주협회와 ‘전통주 산업의 발전과 판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중기유통센터는 국세청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세금포인트 할인쇼필드’에 전통주 입점을 추진한다. 또 ‘전통주 온라인 판매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전통주 명인과 양조 중소·소상공인의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김승호 기자

유진기업, 연말 맞아 지역사회에 ‘온정’

서인천공장·서서울공장 지역에 기부금

유진그룹 모회사 유진기업이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에 온정을 나눴다.

유진기업은 서인천공장과 서서울공장이 지역의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각각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유진기업 서인천공장은 지난달 27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재단법인 드림파크장학회에 장학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전달된 장학금은 인천과 김포 매립지 인근 주민 및 관련 업무 종사자 자녀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유진기업 서서울공장도 지난달 30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과 원신동 행복복지센터에 기부금 300만원을 각각 전달했다. 이번 기부금은 지역사회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해 활용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기보, 기술혁신창업가 추가 발굴 앞장

벤처캠프 통합 데모데이 열어

기술보증기금이 기술혁신창업가 추가 발굴에 나섰다.

기보는 지난 1일 서울 강남 디캠프에서 ‘제13기 기보벤처캠프 통합 데모데이’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데모데이에는 기보가 발굴한 혁신창업기업 40개사와 민간 액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 벤처투자업계 관계자 등 약 8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우수참여기업 9개사는 개별 IR을 통해 참석한 투자관계자에게 기업을 직접 홍보할 수 있는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받았다. 기보벤처캠프 통합 데모데이 행사 영상은 추후 기보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보벤처캠프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정책’에 맞춰 혁신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다.

/김승호 기자